한미정상회담 의제 조율…북미교착 타개 초점

정경두·김현종 워싱턴 방문
카운터파트너와 잇단 회담
강경화, 폼페이오 만나고 귀국
의회 찾아 정치권 지지 당부도

한미정상회담이 다음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안보 핵심인사들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 북미협상 교착 타개를 위한 사전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측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만나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북미협상 재개 방안 등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한 데 이어 좀 더 구체적 수준에서 의제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가 각각 단계적 접근과 일괄타결식 해결을 내세우며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는 포괄적 접근을 통한 단계적 이행이라는 절충지대로 북미를 이끌어내려고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김 차장은 미국 상·하원의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두루 만나 북미협상을 촉진하고 중재하는 한국 정부 입장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더욱 커진 미 정치권 안팎의 회의론을 누그러뜨리고 미 의회에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으로 관측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워싱턴DC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과 마주 앉는다. 양 장관은 북미협상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당국 차원의 후속 조치를 협의할 계획이다. 키리졸브 연습을 대체해 3월 4~12일 실시된 '19-1 동맹' 연습의 성과 평가와 함께 향후 한미연합훈련 및 연습의 방향도 논의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도 면담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일각에서 한미동맹 균열 가능성을 지적해온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의회 차원의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워싱턴DC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만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북미협상 재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 이후 특파원들과 만나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이 동맹강화, 북핵 공조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정상 간 협의가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준비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소개했다.

한미 외교장관이 대면 회담을 한 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이다. 강 장관과 함께 방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별도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워싱턴DC를 방문, 하루 뒤인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마무리된 후 한미 정상이 첫 대면협의를 하는 것으로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는 북미협상이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슬로바키아 첫 여성 대통령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실시된 슬로바키아 대선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주사나 카푸토바 후보가 수도 브라티슬라바의 선거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진보정당 '진보적 슬로바키아'의 카푸토바 후보의 당선을 공식 발표했다. 슬로바키아에서 여성 대통령이 선출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대선 코미디언 출신 1위 우크라이나 대선이 실시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코미디언 출신의 정치 신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후보가 수도 키예프의 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 출구조사'에 따르면 젤렌스키가 30.4%, 페트로 포로센코 현 대통령이 17.8%의 득표율로 1, 2위를 차지해 결선투표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日 새 연호 '레이와'…中 아닌 日고전 첫 인용

화합 상징…내달부터 사용

오는 5월 1일 시작되는 나루히토(德仁·59) 새 일왕 시대의 이름이 될 연호(年號)가 '레이와'(令和)로 결정됐다.

레이와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인 만요슈(万葉集)에 나오는 말이다. 일본이 서기 7세기에 연호제를 도입한 이후 중국 고전이 아닌 일본 고전에서 인용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일 나루히토 새 일왕 즉위를 한 달 앞두고 열린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헤이세이(平成)를 대체할 연호로 레이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기자회견에 나선 아베 신조 총리는 "레이와에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마음을 맞대면 문화가 태어나고 자란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며 "화사하게 피어나는 매화꽃처럼 일본인들이 내일을 향한 희망과 함께 꽃을 크게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호는 군주제 국가에서 임금이 즉위하는 해에 붙이는 이름이다. 일본에선 지금도 일상생활에서 햇수를 나타낼 때 서기(西紀)와 함께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올해 12월 만 86세가 되는 아키히토 일왕은 2016년 고령을 이유로 큰아들인 나루히토 왕세자에게 자리를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일본 정부는 새 연호 제정 등 퇴위 준비 작업을 해왔다. /연합뉴스

말레이, 김정은 살해 베트남 여성 내달 석방

살인죄 아닌 상해죄 적용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베트남 여성이 살인혐의 대신 상해 혐의를 적용받아 다음 달 초에 석방된다.

1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법원은 이날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의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날 흐엉에 대해 살인혐의 대신 위험한 무기 등을 이용한 상해 혐의로 공소를 변경했고, 흐엉이 즉각 상해 혐의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지 법령상 살인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는 반면 상해 혐의는 최고 징역 10년에 처한다.

말레이시아 검찰이 흐엉에 대한 공소를 변경한 이유는 즉각 공개되지 않았다. 흐엉은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함께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흐엉의 변호인은 "말레이시아 사법 시스템에서 통상적으로 감형이 이뤄진다"면서 "흐엉은 오는 5월 첫째 주에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당국의 이 같은 조처는 시티의 공소를 전격 취소하고, 석방한 지 3주 만에 이뤄졌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75〉 백민중

백민중(白敏中, 792~861)의 자는 용회로 화주 하규 출신이다. 시인 백거인의 종제(從弟)로 선종과 의종 때 재상을 역임했다.

목종 장경 원년(821) 진사에 급제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하동, 정활, 반녕의 절도부에서 서기를 거쳐 대리사평사가 되었다. 833년 모친을 잃었다. 무종 회창 원년(841) 진중시어사를 거쳐 호부원외랑으로 임명되었다. 842년 무종이 백거이를 재상으로 쓰려하자 그를 싫어한 이덕유는 백거이가 쇠약하고 병을 앓아 조정에서 알현하는 일을 맡길 수 없다고 주청했다. 종형 못지 않은 학문과 도량을 갖춘 백민중을 한림학사로 발탁했다. 846년 동평장사로 임명되었다. 무종이 단약의 후유증으로 급서하자 황숙인 광왕 이침이 선종으로 즉위했다. 그는 병부시랑으로 동중서문하평장사를 겸하게 되어 재상 직위에 오르게 되었다. 선종이 이덕유를 멀리하자 과거 자신을 이끌어 준 이덕유 일파를 제거하는데 앞장섰다. 이덕유 집권시 한직에 머물렀던 노상을 무창절도사에 최원식을 문하시랑에 위종을 중서시랑으로 기용하고 나란히 동평장사로 삼았다.

이후 상서우부사, 문하시랑에 임명되고 태원군공에 봉해졌다. 5년동안 13번 승진해 벼슬이 원외랑관에서 재상에 오르는 커다란 영광을 누렸다. 851년 당항이 변경을 침략하였다. 3월 당항을 진무하는 도통제치등사 겸 남북양로공군사로 임명되었다. 헌종때 재상 배도가 회서를 칠 때의 전례를 따라 조정대신을 참모로 삼았다. 선종이 직접 안복루에서 전송하였다. 개부벽사의 권한을 주고 신책군으로 하여금 호위토록 배려했다.

영주에 진을 쳤는데 정원성사 사원이 섬서성 삼교곡에서 당항군을 무찔렀다. 그는 조사를 내려 항복한 당항족을 위무하고 땅을 주어 경작토록 했다. 변경의 백성들에게 3년간 면세 혜택를 주어 민생을 안정시켰다. 다시 오랑캐가 변경을 침입하면 변방의 장수에게 먼저 죄를 묻겠다고 선언했다. 853년 성도윤, 검남서천절도사에 제수되어 5년간 서천을 다스리며 성벽을 수리하고 복원하였다. 857년 강릉윤, 형남절도사로 자리를 옮겼으나 동평장사 직을 겸하였다.

859년 선종이 죽고 장남 이최가 의종으로 즉위했다. 그를 장안으로 불러 사도, 문하시랑, 동평장사로 삼고 정사를 돕도록 하였다. 이어 시중으로 승진했다. 860년 황궁에 돌아와 조현하였으나 계단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치는 일이 일어났다. 세 번 표문을 올려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의종이 허락하지 않았다. 우보권 왕보는 소문을 올려 사직을 허락해줄 것을 청했다. "폐하께서 통치하시는 초기는 재상이 마음을 다 기울여야 하는 날이니 잠시라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백민중은 정월부터 누워서 4개월째 앓고 있습니다. 바라컨대, 그의 파직을 허락하시고 큰 덕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시오." 의종이 크게 화를 내 하남성 양직현령으로 좌천시켰다. 9월에 다섯 번이나 사직 상소를 올렸는데 오히려 중서령으로 승진시켰다. 861년 2월 봉상절도사에 충임하였다. 남만에서 난이 일어나자 그를 불러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의 거듭된 사직 상소에도 불구하고 동도유사에 임명되었으나 극구 사양하였다. 결국 태부의 직위로 물러나게 하였다. 7월 봉상에서 70세로 죽었다. 사후 태위로 추증되었다. 태상박사 조업은 그가 "병이 들었지만 사퇴하지 않고 간언하는 조정 대신들을 몰아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가 오래 재상 직을 지킨 이유는 한마디로 '예스맨'이었기 때문이다. 항상 황제의 뜻을 받들었다. 선종이 이덕유 일파를 싫어하자 과거의 은덕을 망각하고 단호히 그 세력을 제거하였다. 이함을 사주해 그의 잘못을 폭로토록 했다. 이로 인해 조정 내외의 평이 크게 나빠졌다. 카리스마 넘치는 선종에게는 백민중 같은 무색무취한 인물이 가장 편안한 재상이었다. 그의 무능이 장기간 재상에 머물 수 있게 해주었다. 왕부지(王夫之)는 백민중과 영호도에 이르러 당 왕조 멸망의 화가 시작되었다고 평하였다. 명철보신(明哲保身)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황제의 뜻만 받든 '예스맨'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1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매매 - 평당 25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